

펀드 트렌드에 따른 투자 전략

초저금리 시대에는 어떤 투자전략을 세워야 할까? 불안한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전략을 세우기란 쉽지 않다. 최근 펀드상품의 트렌드를 알아보고 상품별로 어떤 투자전략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자.



저금리와 저성장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1%대의 예금 이자율을 받아들이기보다 다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수익률이 높은 투자상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본격적인 투자에 앞서 최근 투자 트렌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

글로벌 수요 부진 환경에서 미국의 금리인상 이벤트, 그에 따른 통화변동성 확대, (지난 2월을 저점으로 반등하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의 약세 등 글로벌 자산시장은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3개월간 글로벌 시장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강력한 통화완화 정책을 기반으로 강세를 보였던 선진국 증시가 하락 반전했다. 반면 달러강세가 완화되고,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면서 원자재 수출국을 비롯한 이머징 증시가 약진했다. 그런데 5월 말 현재 WTI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저점 대비 60% 이상 크게 오른 데다, 수요와 공급을 고려할 때 50달러대가 상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최근 3개월의 트렌드를 계속 이어갈지 확신이

신제요
KEB하나은행 투자상품서비스부 포트폴리오 매니저
jeyoshin@hanafn.com

▶ **학력/자격증**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한불과/서울대 불어불문학과
투자자산운용사, 일반운용전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전문인력
증권투자권유전문인력, 펀드투자상담사

▶ **경력**
외환은행 펀드팀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펀드리서처팀

▶ **현재 활동**
KEB하나은행 포트폴리오 매니저, 펀드리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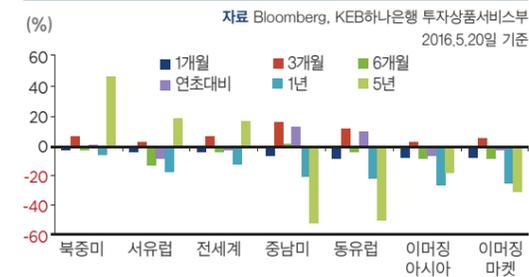
어렵다는 점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국내 투자자들은 크게 두 가지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펀더멘털이 우량한 자산과 장기 안정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중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높지만 기대수익률도 높은 자산과 단기 일시적 성과가 기대되는 자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매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 대한 니즈 커져

이는 자금 흐름에도 나타나고 있다. 국내 펀드시장에만 국한해서 살펴보면, 비과세혜택이 지속되는 10년간 연체는 환매해도 무방한 비과세해외주식투자전문펀드는

지역별 증시 상승률



비과세해외주식형펀드 판매액 상위 1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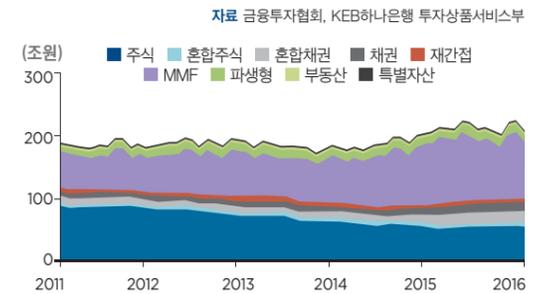
순위	펀드명	투자 대상	설정 규모 (백만원)	수익률
1	피델리티글로벌 배당인컴	글로벌	54,377	1.57%
2	한국투자베트남그로스	베트남	34,905	1.19%
3	신한BNPP 중국본토중소형주RQFII	중국	29,447	2.46%
4	이스트스프링 차이나드래곤A	중국	22,216	2.62%
5	KB차이나H 주식인덱스	중국	17,981	14.27%
6	AB미국그로스증권	미국	16,327	1.87%
7	KB중국본토A주	중국	14,846	4.18%
8	삼성중국본토중소형 FOUUS	중국	13,999	7.31%
9	슈로더유로증권	유럽	11,612	2.21%
10	블랙록월드 에너지증권	글로벌	11,091	20.49%
계			226,803	

자료 한국금융투자협회(2016년 4월 말 기준)

Summary

- ① 저금리·저성장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대의 예금보다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② 과거 투자상품은 곧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 단기적 관점으로 접근했지만 최근에는 기대수익이 낮더라도 변동성을 낮추고 장기투자가 가능한 대안형 상품이 부각되고 있다.

국내 펀드 유형별 판매 규모



시행 초기부터 이러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안정적 성과가 기대되는 글로벌배당펀드와 변동성이 높지만 기대 수익률도 높은 중국, 베트남, 에너지섹터 등의 공격적 주식형펀드가 계속해서 판매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순수주식형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ETF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중장기 관점에서 안정적인 배당주펀드, 성장성이 높은 중소형펀드에 대한 관심은 유지되고 있으나,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하는 레버리지펀드 등은 코스피 레벨에 따라 들쭉날쭉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주식보다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혼합형 상품과 대안형 상품이 인기가 있다. 주식을 매수할 뿐 아니라 매도하는 전략을 추가하여 수익률 변동성 통제를 추구하는 롱숏펀드, 평소에는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채권 위주로 투자하다가 좋은 공모주가 상장될 때 투자해 수익을 노리는 공모주혼합형펀드, 만기가 긴 채권에 투자하는 장기채권투자펀드 등이 개인 뿐 아니라 법인들의 관심을 꾸준히 얻고 있다.

앞으로 저금리·저성장이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 보니, 예금의 대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기상품에 대한 니즈도 늘어나고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실적배당상품은 두 자릿수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었고, 연 5%대 기대수익의 투자상품에 투자하느니 차라리 예금에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들도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 4%라도 매년 꾸준히만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기꺼이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었다.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 자산에 배분하여 분산투자하는 상품, 부동산 또는 ELS로 많이 알려져 있는 구조화 상품 등 다양한 수익/위험구조와 형태를 가지는 대안자산(Alternative Asset)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